



구연상

칸트의 도덕법칙:

무엇이 선(善)하고 악(惡)한가?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칸트의 도덕법칙: 무엇이 선(善)하고 악(惡)한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당신은 선한가, 악한가? 선과 악을 가르는 구분점은 무엇인가. 정언 명령으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도덕법칙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했다. 선악의 분별이 어려운 이 시대. 칸트의 철학을 만나보자.

학습 목표

- 칸트가 상정한 인간의 본성
- 인간의 세 가지 요소
-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른 선과 악의 구분
- 보편적, 필연적 도덕법칙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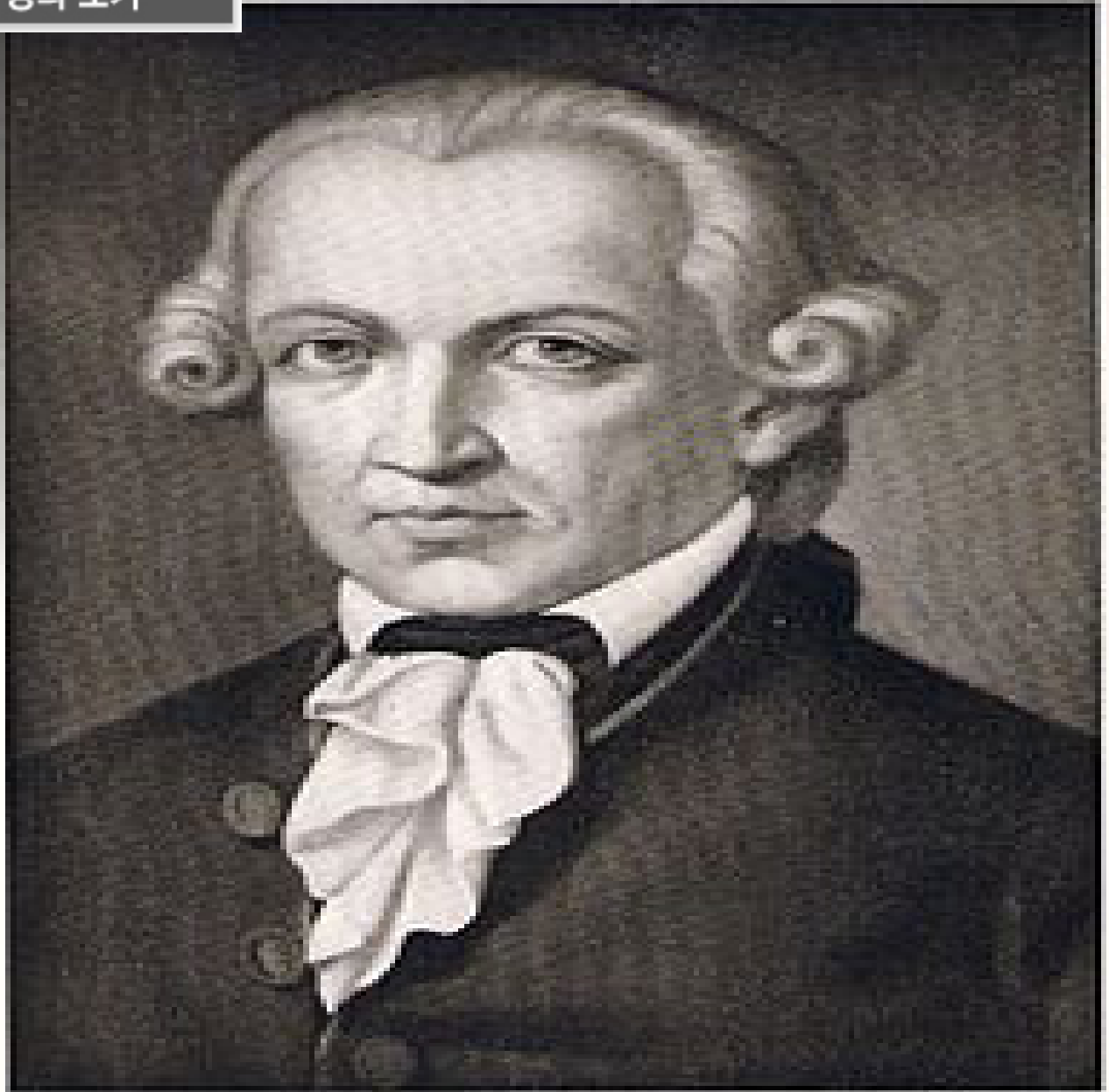
강사 소개

• 구연상

철학자, 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저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2002), 『철학은
슬기 많힘이다』(2009) 외 다수

강의 보기



IMMANUEL KANT
From a painting

- 제목 : 칸트의 도덕법칙: 무엇이 선(善)하고 악(惡)한가?
- 강사 : 구연상 (철학자)
- 구성 : 19분

지식 노트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

정치철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1953~)이 30년 넘게 해온 ‘정의’ 강좌 내용을 엮은 책. 미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13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강의 노트

현대 사회에서 악(惡)은 불투명하게 드러나기에 선(善)의 입장에서 철학적 해명이 절실하다.

칸트는 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칸트 철학의 핵심: 인간이란 무엇인가?

실존주의 철학: 나는 누구인가? → 관계

칸트 철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 요소(element)

- 사람은 앎(진리)을 추구한다
- 사람은 선을 추구한다.
- 사람은 분열된 삶을 통합한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

사람은 선을 지향하도록 태어났지만 반드시 선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칸트는 선을 지향하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선을 행하다보면 악한 경향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Anlage: **삐이 난 눈** → **소질(素質)**

사람은 원래 선을 지향하지만, 악재를 만났을 때는 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세 가지 요소

① 동물성”

② 인간성(감성)

③ 인격성

① 동물성 ② 인간성(감성) → 이기심의 근원인 “자기 사랑”

③ 인격성 →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능력

③ 인격성 →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능력
=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능력

Achtung 존경, 존중

attention 주의, 집중

Achtung 존경, 존중

attention 주의, 집중 → 자기보다 높은 존재자에게
자신을 낮춘다는 개념이 들어 있음

칸트가 말하는 선과 악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 선(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 → 악(惡)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 『실천이성비판』

너 → 모든 사람, 저마다, 개인, 각자

이성: 법칙을 세우고 발견하는 능력

준칙(Maxime): 필연성과 보편성이 증명되지 않은 단
계, 가설

“내가 행동하려는 준칙이 보편성과 필연성에 타당하면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 사용치 않도록 행위하라.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칸트의 도덕법칙

악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의무), 또는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따를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도,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다하는 대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 ① 도덕법칙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 ② 내세우는 도덕법칙과 자신이 행하는 도덕법칙이 다르다.

악

- ①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 ②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경우

악의 전제 조건: 이성의 자유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에서 칸트가 행동의 동기만을 도덕적 가치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설적 법칙(준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지를 검토(이성적 판단)한 이후에야 선,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의 준칙과 보편적 도덕법칙의 합치가 그 행동의 선함을 보장하는가?

이성에 기초한 도덕법칙 - 법칙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여 행위 → 선(善)

이성에 기초한 도덕법칙 - 법칙을 의지적으로 거슬러 이익을 위해 행위 → 악(惡)

오랫동안 지하철에서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 의자에 앉고 싶다는 생각
→ 경향성, 감성적 욕망

청년은 마땅히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보편적 도덕법칙

청년의 양보는 도덕법칙을 따른 이성의 명령을 수행한 것일 때만 칸트가 말한 선이 된다.

마땅히 해야 할 도덕법칙을 행한 것은 칸트의 입장에서 칭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의 본질인 경향성을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칭찬할 만한 선이 된다.

몸이 불편하고 약한 청년과 건장한 노인의 경우 도덕법칙에 따라 청년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선인가?

학습 요약

- 칸트는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성향 역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칸트는 인간의 세 요소로 동물성, 인간성(감성), 인격성을 상정하였는데, 이 중 동물성과 인간성은 자기 사랑의 경향성을, 인격성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칸트는 자신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며, 법칙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면 선, 그렇지 않고 이익을 위해 행위하면 악으로 보았다.
- 칸트의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도덕법칙은 현실에 적용했을 때 동기가 아닌 결과에 대한 판단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는다.

인문 퀴즈

1.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30년 넘게 해온 '정의'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그의 저서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어 약 130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책의 제목으로 올바른 것은?

- (1)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2)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3) 『실천이성비판(Critique of Practical Reason)』
- (4) 『도덕의 계보(On the Genealogy of Morals)』

2. 독일 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칸트의 저서인 『실천이성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칸트의 3대 비판서 중 하나로 1788년에 출간되었다.
- (2) 수학과 자연과학의 방법을 통해 형이상학에서의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 (3)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에 대해 연구한 윤리학 책이다.
- (4) 칸트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정언명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인문 퀴즈

3. 독일 관념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 보기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아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악한 행위이다.

(2) 몸이 좋지 않은 청년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선한 행위이다.

(3) 버리기 위해 내놓은 난로를 노숙자들이 가져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냈다.

→행위의 결과가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선한 행위이다.

(4) 빈민을 돕기 위해 북한에 보낸 후원금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의지의 준칙이 도덕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하므로 선한 행위이다.

정답

1. (1) 2. (2) 3. (3)

2.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는 순수이성비판의 내용이다.

3. 칸트의 윤리학은 결과가 아닌 행위의 의지와 도덕법칙의 일치여부에서 선악이 판단되기 때문에 4번은 맞고 3번은 틀리다.

칸트의 도덕법칙: 무엇이 선(善)하고 악(惡)한가?

강사: 구연상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